

미국 Toccoa Falls College 피아노 주임교수 피아니스트 이유주

Frederic Chopin : Selected Piano Works 음반 출판

“Konz Summer Akademie für Klavier und Kammermusik의 피날레에서 Trier 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피아니스트 이유주의 연주(모차르트의 <내림마단조 K.449>)는 청중으로부터 열호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미국에서 활발한 활동을 가지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유주의 연주는 ‘고전의 즐거움의 교감(Classical Enjoyment in the Neighborhood)’이라는 부제가 붙을 정도로 독일 청중에게 품격 있는 클래식 음악으로 여름을 식히는 청량제 역할을 해주었다.”

- 2013년 8월 Austrian newspaper last summer 리뷰 중 -

2013년 12월 프레데릭 쇼팽의 <안단테 스피니아토 & 그랜드 폴로네즈 브릴란테 내림마장조 작품22>, <에튀드 바장조 작품 10의 8>, <마주르카 내림마장조 작품24의 4>, <그랜드 춤곡 브릴란테 내림마장조 작품18>, <녹턴 내림마장조 작품27의 2>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 <소나타 제2번 내림마단조 작품 35>를 수록한 음반을 출판한 재미 피아니스트, 미국 Toccoa Falls College 피아노 주임교수로 현지에서 활발한 활동을 갖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유주가 일시 한국을 찾아 인터뷰를 나누었다.

“한국에 와서 감회가 깊습니다. 이번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시게 되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3년 연말을 두고 평소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쇼팽의 <소나타 2번> 중 3악장 ‘Marche Funebre’와 함께 쇼팽의 작품을 프로그램으로 음반을 출판하게 되었어요. 아버지께 헌정하는 음반입니다.”

그는 국내에서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하고 도미하여 조지아주립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D.M.A)를 받았다. 그 후 런던 시티대학교에서 페다고지 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미국 이스트만음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맨해튼음대에서도 연주자 과정을 수학하였다. (사사 국내에서 정진우, 이영희, 유순희, 리차드 짐다, 루스 맥도날드, 캐롤라 그린디아, 베리 스나이더, 마크 실버만 교수)

‘음악의 깊은 이해와 표현력 극대화하는 연주자’로 호평

“피아니스트 이유주는 페스티벌에 함께 한 사람들과 서로의 음악적인 아이디어를 주고 나누며 우정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서로 리허설을 통해 토론 형식으로 평가와 격려를 해주며 함께 참여하고, 의견 교류와 경험담을 주고 나누며 서로의 감정을 편안하게 대화를

통해 소통하며 협동해 주었습니다.”(독일의 트리에르(Trier) Summer Akademie für Klavier und Kammermusik 기획자 겸 예술감독 폴 트레인(Paul Trein))

지난해 8월 독일 트리에(Trier) 필하모닉과 모차르트의 <협주곡 내림마단조 K.449>를 협연하여 현지 언론으로부터 “피아니스트 이유주의 음악은 재창조적인 해석에 의한 깨끗하면서도 모차르트의 적합한 사운드를 표현하였다.”는 평을 얻기도 하였다. 아울러 같은 기간에 12명의 피아니스트와 6명의 현악 연주자들과 함께 독일의 트리에르(Trier) Summer Akademie für Klavier und Kammermusik에 초청되어 실내악 연주회를 성황리에 가졌다.

또한 2005년 음악춘추사 초청 독주회를 세종체임버홀에서 가진 바 있는 그는 2006년에 Artist International 수상자로서 뉴욕 카네기홀에서 데뷔 연주를 시작으로 그동안 미국을 중심으로 솔로와 앙상블, 협연 등 다양한 활동을 가지며 조지아주립대학교의 교수를 역임 했다. 2011년에 Weill Recital Hall at Carnegie Hall에서 American Protege Gala Concert와 Duo Piano Concert을 가진 바 있으며 2012년 5월 Toccoa Falls College로부터 교수상을 수여받기도 하였다.

한편, 2010년에는 Serbia에서 열린 국제피아노학회에서 강의와 연주를 가졌으며, 미국 여류작가 <Marga Richter의 20세기 교육적 피아노곡의 성격>이라는 제목으로 그녀의 글이 <Clavier Companion November/December, 2011>에 실린 바 있다. 아울러 2012년 4월 미국 클래식 전문지 <Clavier Companion>에 실린 아티클 「리차드 짐다스(미국 조지아주립대학교 교수)에 의한 알프레드 브렌델과의 인터뷰 ‘끝없는 탐구’ (The Pleasure of learning

and searching never ends》」가 한국의 월간지 <더뮤직> 2012년 9월호에 번역 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피아노 전문 잡지 <Clavier Companion>의

칼럼니스트로 원고 기고

“타코아 폴즈 컬리지(Toccoa Falls College)는 종교학교입니다. 한국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정부의 승인받은 학교로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학교이며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의 종교음악 및 클래식 음악 발전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유능한 인재를 발굴, 등용하고 있는 타코아 폴즈 컬리지의 특징은 글로벌 선교 학교로서 아프리카 대학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등 남미대학 및 동양의 인도네시아, 홍콩 등 과도 교류하고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TALK 프로그램과 자매 결연을 맺어 교류 나누고 있는 글로벌 대학입니다. 음악학부는 전공 관련하여 피아노, 성악, 관현악, 지휘, 종교음악 등이며 특히 현대종교음악과는 세계에 몇 안 되는 특화된 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피아니스트 이유주는 미국에서 교육자로 활동하면서 가장 큰 바람

자랑스런 음악 교수 중의 하나로 꼽는다.”고 Toccoa Falls College newspaper는 칭찬을 아끼지 않는 평을 내놓았다.

“2014년의 계획으로 이제는 편안하게 음악을 인생에 담아 즐기고 싶습니다.(웃음)”

앞으로 독주보다는 챔버 음악을 많이 하고자 한다는 이유주. 그러한 특별한 이유라면 서로의 대화와 음악적인 교류 즉, 한 사람보다, 두 사람, 여럿이 함께 호흡하며 나누는 앙상블을 통해 얻는 배움이 크다고 한다. 피아노는 자기만의 소통으로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챔버는 인간관계 형성과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는 관계로 이해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얼마 안 있으면 카네기 Zankel홀에서 피아노 트리오 연주를 가질 예정입니다. 아틀란타 심포니의 첼리스트와 바이올린과 함께 합니다.”

음악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자 한다는 이유주. 자신의 스승이 그랬듯이 그 또한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미래의 통로를 열어주고 적극적으로 서포트 가이드 해주는 교육자로 남고 싶다는 포부를 나타낸다. 또한 한국과 Toccoa Falls College와의 교육 & 연주 교류 등 다양한 협력 관계

“프레데릭 쇼팽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음악가로서 나의 음악적인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쇼팽의 음악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모든 감정—슬픔 기쁨 고독 사랑 희열 등등— 즉 미묘한 인간의 감정들을 알고 함께 이해하여야만이 그의 음악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음반이 첫 음반입니다. 브람스의 경우 자신의 첫 작품을 40세가 넘은 후에야 발표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보다는 늦게 만들었지만 준비하는 동안 배움이 컸고,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애정 음반이라고 하겠습니다.”

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존경 받고 싶은 교수가 되는 것이라고 힘주어 이야기한다.

“학생들로 하여금 저 선생님처럼 해야지...저 선생님처럼 되어야지... LAW Model이 되는 교육자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과 인간적인 신뢰를 쌓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세심한 신경과 이해를 많이 해주려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의 대화와 상담을 통해 딱딱함보다는 부모의 관계로 뭐든지 상담하면서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자로서 학생들과의 거리를 좁히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음악을 인생에 담아 즐기려다

유럽 무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카네기홀에서의 연주 등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갖고 있는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유럽의 큰 시즈에 포함되는 비엔나에서 열리는 서머페스티벌의 콘서트에서 오케스트라와 연주를 가질 예정인 이유주. “피아니스트 이유주는 프로페셔널한 연주로 Toccoa Falls College의 음악적 위상은 물론이요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학교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를 형성하는 사절로서, 2014년 하반기 안식년을 맞으며 한국 교정에서도 후학을 지도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쌓아온 노력을 나누어 갖게 되길 새해를 맞는 희망으로 나타낸다.

“프레데릭 쇼팽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음악가로서 나의 음악적인 인생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쇼팽의 음악을 이해하려면 인간의 모든 감정—슬픔 기쁨 고독 사랑 희열 등등— 즉 미묘한 인간의 감정들을 알고 함께 이해하여야만이 그의 음악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음반이 첫 음반입니다. 브람스의 경우 자신의 첫 작품을 40세가 넘은 후에야 발표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보다는 늦게 만들었지만 준비하는 동안 배움이 컸고,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은 애정 음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많은 부족함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부를 해야만 하고 홀로 싸워야 하는 과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있어 즐겁습니다.” ⑥



Stürmischer Applaus für Pianistin You Ju Lee, Bratscher Benjamin Beck und Geiger Jon Hess (von links) beim Abschlusskonzert der Konzer Sommerakademie. TV-FOTO: MARTIN MÖLLER

Klassik ganz aus der Nähe

Orchesterkonzert der Sommerakademie Konz mit Top-Solisten und eindrucksvollem Schluss

Wie fade kann Wiener Klassik in großen Konzertsälen wirken! Und wie nah, wie lebendig klingt sie im Festsaal Karthaus. Die Sommerakademie verabschiedete sich dieses Jahr vor 110 Besuchern mit Haydn und Mozart. Und mit bemerkenswerten Solisten.

Von unserem Mitarbeiter
Martin Möller

Konz. Sie fragen und antworten einander in Tönen. Sie wetteifern, musizieren dann wieder einträchtig zusammen und befehlen sich gegenseitig.

ten Geiger Jon Hess und Bratschist Benjamin Beck bei Mozarts großartiger Sinfonia concertante (KV 364) eindringliche Duo-Qualitäten. Auch im kleinen Orchester aus Mitgliedern der Trierer Philharmoniker und Kursteilnehmern unter Paul Trein entfaltete Mozarts Musik ihr eindringliches Spektrum – zwischen herrischem Auftrumpfen und sachter Wehmut.

Es war der Abschluss einer gehaltenen Konzertreihe. Viermal traten die Kursteilnehmer im ... das Publikum ... finanzierten ... rutine und ... professionel-

les Niveau. Im Abschlusskonzert bestachen außer Geiger und Bratscher auch Cellist Tim Oberbillig bei Haydns D-Dur-Cellokonzert mit leichtem, aber tragendem Ton. Und Pianistin You Ju Lee verlieh Mozarts Konzert KV 449 klare, scharfe Klangkonturen.

Auch an Publikumsinteresse mangelte es nicht. An die 700 Besucher kamen zu den Konzerten in Konz, Trier, Bitburg und Losheim. „Wir sind mit dem Besuch sehr zufrieden“, sagte Initiator und Leiter Paul Trein. Die Sommerakademie bietet die seltene Möglichkeit, Klassik und Romantik in ihren unterschiedlichen Ausprägungen zu erleben. Und

das ganz aus der Nähe, im vergleichsweise kleinen Karthäuser Festsaal. In Sälen solcher Größe wurden zu Lebzeiten Haydn und Mozart aufgeführt.

In der Konzer Sommerakademie trafen sich dieses Jahr zwölf Pianisten und sechs Streicher. „Fast alle wollen wiederkommen“, sagt Paul Trein. Die Kursarbeit in der Sommerakademie ist intensiv, bleibt aber kollegial. „Wir geben keinen Unterricht“, sagt Paul Trein und meint damit: Es geht in der Akademie nicht um die Kleinarbeit am Instrument – die setzt man voraus. Im Mittelpunkt stehen Fragen der Interpretation. Trein: Wir schauen

tiefer in die Musik und versuchen, die Werke zu verstehen.“

2014 besteht die Konzer Sommerakademie 20 Jahre. Dann will man sich mit Beethovens Tripelkonzert für Klavier, Violine und Violoncello mit seinen schwierigen Streicherpartien befassen.

Außerdem steht Mozarts wunderschönes Es-Dur-Konzert für zwei Klaviere auf der Agenda. Für die Kursteilnehmer ein Grund mehr, wieder dabei zu sein. Und für die Musikfreunde Anlass, sich auf die Konzerte im kommenden Jahr zu freuen. Zu den Konzerten dieses Jahres steht noch ein Nachzügler an: am 6. September in Montigny-lès-Metz.



Pianist **You Ju Lee** is an accomplished pianist who has won numerous awards and performed recitals in Europe, Asia and the United States. Reviews of her recent concerts in Germany stated:

"Pianist You Ju Lee is a remarkable soloist and she brought clear, defined sonorous contour to Mozart's Concerto K.449."

Other professional highlights include solo and duo piano recitals at Carnegie Hall's Weill Recital Hall; Mu Phi International Convention in Rochester, New York; Winners Gala Concert for the American Portege international Competition of Romantic Music and New York Debut Recital in the Artists International Special Presentation Winners' Series at Carnegie Hall's Weill Recital Hall.

You Ju Lee received her D.M.A. Degree from the University of Georgia under Dr. Richard Zimdars. She studies under Ruth McDonald at Georgia State University and continued her graduate program at City University London under Carola Grindea and in New York at the Eastman School of Music under Barry Snyder, and the Manhattan School of Music under Dr. Lee enjoys teaching immensely. She currently serves as an Associate Professor of Piano at Toccoa Falls College, in Toccoa Georgia, and Artist-Teacher of Piano at Preparatory Music at Brenau University, in Gainesville, Georgia.